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발전 10개년 계획 어음제도 2010년까지 폐지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중소기업 발전 비전 2010」이라는 10개년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0년까지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안)에서 향후 제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평균신장률이 대기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0년까지 중소기업의 비중을 수출은 현재 34%에서 50%, 부가가치는 48%에서 56%, 고용은 70%에서 78% 수준까지 각각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정보화 기반 확충, 창업활성화와 체질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선진적 기업 분위기함양,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체계의 정비 등 6개 정책방향을 선정하고 부문별 주요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식창고를 구축하고 고급 두뇌에 대한 브레인 탱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계 고교의 직업소양 기초교육 2년 과정과 전문대의 심화학습 2년 과정을 연계하는 학제 개편안 「2+2 시스템」을 실시하고 창의적 기업이 정신 함양을 위해 초·중등 교과내용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기능 강화와 관련, 경영투명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육성 기능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넘겨 2007년에는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퇴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신용조사업무무수행을 담당할 중소기업 전문 신용조사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기업과 혼재되어 있는 지원자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경협 사업에 대한 세제와 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국책 중소기업 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비전 안은 지난해 말부터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학회가 주축이 되어 1,2차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